

### 신춘문에 당선작

#### (20면에서 계속)

**여** 자는 어머니가 동생을 재우면서 부르던 노래를 흥얼거렸다. “엄마가 섬 그늘에 곱 따라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여자의 눈을 뻔히 들여다보던 동생의 눈이 스르르 감기면 여자는 노래를 멈추고 습관처럼 마당 너머로 귀를 기울였다. 빼그덕, 대문이 열리고 금방이라도 어머니가 달려올 것만 같아서였다. 겨울방학이 되었다. 손영이 할머니 회갑 잔치가 있는 날이라 동네가 온통 잔치집 같았다. 큰어머니는 일을 거들어야 한다며 손영이네로 갔다. 배부르게 점심은 먹은 아이들은 벌이 잘 드는 큰 집 담배락 아래에서 모여 놀다가 누군가의 제안으로 열리는데 모여 놀다가 누군가의 제안으로 열리는데 모여 놀다가 누군가의 제안으로 열리는데...

문을 나설 수가 없었다. 언젠가 엄마를 따라 버스를 탈 때처럼 어질어질하고 속이 메스꺼웠다. 여자의 몸이 땅 속으로 쏙 꺼지는 느낌이 드는 것도 같았다. 여자가 눈을 떴다. 방 안이었다. 동생이 옆에서 자고 있었다. 온몸이 육신거리고 목구멍이 따가웠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큰어머니가 여자와 눈이 마주치자 “이 미련한 인사가, 솜바꼭질 두 번만 허다가는 숨 끊어지겠다.” 하며 여자를 걱정스럽게 쳐다봤다. 손영이네에서 늦게 돌아온 큰어머니가 여자를 광에서 발견한 것은 한밤중이었다. 어디에서 놀고 있거니 했는데 밤이 늦도록 여자가 돌아오지 않자 큰엄마는 여자를 찾아 나섰다. 손영이에게 솜바꼭질을 하다가 여자가 없어졌다는 얘길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다. 큰어머니가 오줌을 쌀 채 광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여자를 발견했다. 동생은 예전처럼 큰아버지 무릎에 앉지 않았다. 그러나 양경이나 사랑을 받아먹기 위해 여전히 큰아버지 주변을 맴돌았다.

#### 여자는 큰집 광으로 숨어들었다

#### “괜찮아, 걱정 말고 여기 사탕먹어”

#### 온 몸에서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다

광문을 닫고 들어서자 생각보다 광 안이 더 어두웠다. 여자는 ‘밖으로 나갈까’ 하다가 숲레가 열을 다 세어가는 것을 듣고는 부리 나게 농기구와 벗가마 사이에 몸을 숨겼다. 조금 후, 빼그덕 거리며 광문이 열리는 것 같더니 이내 닫혔다. 여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시간이 지나고 “정숙이 못 찾았어.”하는 손영이 소리가 들렸다. 숲레가 여자를 찾는 것을 포기한 것 같았다. 여자가 엉덩이를 털면서 일어나는 순간 다시 광문이 열렸다. 여자는 숨을 죽이고 주저앉았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여자를 찾는 숲레는 아니었다. 어둠에 익은 여자의 눈에 어른과 아이로 짐작되는 사람이 보였다. 아버지하 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생이었다. “괜찮아, 걱정 말고 여기 사탕 먹어” 뒤이어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는 온 몸에서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다. 바스라거리는 소리, 거친 숨소리가 났다. 동생이 울음을 터뜨리려고 할 때마다 큰 아버지가 학학대며 “응 응, 여기 사랑, 사랑 먹어” 하는 소리가 들렸다. 동생이 계속 광대고 있었다. 광에 너무 오래 있었던 탓인지 갑자기 아랫배가 뻥뻥해지며 지면서 오줌이 마려왔다. 참으려고 애를 썼지만 허사였다. 그렇다고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쌀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몸을 비틀면서 오줌을 참았지만 도리 없이 여자의 아랫배가 따듯해지며 신발에 물이 고여 왔다.

초여름이었다. 큰아버지가 백설 공주가 그려진 분홍색 슬리퍼 두 켤레를 사서 여자와 동생 앞에 내밀었다. 여자는 슬리퍼를 받고 좋아하는 동생을 데리고 뒤안으로 갔다. 여자가 엉덩이를 털고 두 켤레의 분홍색 슬리퍼에다 오줌을 깔았다. “너도 해 봐.” 동생이 여자를 밀치며 악을 쓰고 울더니 제 슬리퍼를 챙겨서 셋가로 가져갔다. 여름방학이었다. 큰아버지가 책을 분담시키고 앞뒤려 있는 동생을 쳐다보고 있었다. 흐박진 동생의 공동이에 큰아버지의 눈길이 머물렀다. “정미야, 떡 감으로 가져.”

**소** 리가 이내 잠잠해지고 잠시 후 광문이 열렸다. 큰아버지가 동생을 데리고 나왔다. 열린 문 사이로 마당에 쏟아지는 햇빛 한 줄이 보였다. 동생이 나가고 난 뒤에도 여자는 뺨에 도는 아랫도리로 인해 온몸이 추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여자는 문 밖의 세상이 두려워서 광

를 뛰어와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모습이 동생과 좀처럼 닮았다. 동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여자는 동생을 억지로 이끌고 동네 아이들과 함께 강가에 갔다. 동생이 분홍색 슬리퍼를 찢어버려 버렸다. 여자는 동생을 물에 무서워했다. 여자가 허리를 굽혀 다슬기를 건져 올리며 강가에서 물랭이를 잡고 있는 동생을 보곤 했다. 다슬기가 바구니에 절반쯤 차올랐을 때였다. 아버 버 하는 동생의 비명이 들린과 동시에 아이들이 강가에 있는 동생을 강 안쪽으로 밀어 넣는 것이 보였다. 강물은 여자의 무릎까지 차올랐다. 동생이 기우뚱 하는가 싶더니 물 속으로 주저앉았다. 허우적거리는 동생의 손이 보였다.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며 동생을 보고 있었다. 여자가 동생을 향해 다가가려는 순간 동생이 벌떡 일어나는가 싶더니 정신없이 냇물을 따라 내려갔다. 동생의 분홍색 슬리퍼가 굽실굽실 떠나려가고 있었다. 여자와 동생의 간격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갑자기 여자의 시야에서 동생이 사라졌다. 여자는 동생을 향해 절뚝거리며 뛰어갔다. “가지 마,

#### 광주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부문 당선 소감

### 황황히 먼길 떠나신 어머니 그림고 고맙습니다

#### 당선작 정보고서



▲1962년 나주 출생 ▲대전대 문예창작과 4학년

할머니가 자꾸만 강의 상류를 향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몇 구비를 돌았을까,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더니 보따리를 풀고 작은 항아리를 땅 속에 묻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것이 막내 동생의 태(胎)항아리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언저리에 묻혔다는 제 태(胎)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늘 낱것으로 남아 제 배꼽을 간질였습니다. 강물이 밤새 몸을 뒤척이는 소리, 빈 들녁을 훑는 바람소리가 가끔씩 오래된 밧줄을 타고 제 뺨속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마치 정신을 하듯이 그 소리를 받아서 글을 썼습니다. 당선통지 전화를 받고 난 후 한참을 그대로 앉아있었습니다. 불현듯 2002년의 여름이 생각났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 앞마당에서 그리스 신화의 ‘미궁’을 소재로 한 무용이 공연되었었습니다. 공연 도중에 한국 측

구가 월드컵 8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반백의 작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축구가 8강에 진출한 것이 바로 신화입니다.” 저는 지금 그 신화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문화는 세계 삶의 미궁을 빠져나오게 해준 아이아네의 실타래 같았습니다. 그 실타를 문설주에 매어놓고 황황히 먼 길을 떠나버린 어머니와 지금껏 실타를 놓치지 않게 문설주를 살펴준 남편이 간절히 그림고 고맙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끈이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준 송 선생님, 동굴의 입구까지 이끌어주신 대전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님들, 문우들, 가족들, 그리고 심사해주신 분들을 향해 큰 절을 올립니다. 쉬지 않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단편소설 부문 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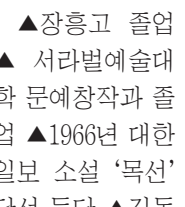
### 아동 성폭력 내면 속 상처, 짜임새 있게 풀어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삶을 창조적이고 감동적으로 우려낸 이야기, 그것이 소설이다. 본선에 오른 열 편의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선 재미와 감동을 기준으로 섰다. “미진은 어머니의 죽음과 딸의 출산을 병치시킨 발상은 신선했으나, 두 이야기를 충분히 유기적으로 풀어내지 못했다. 손을 매개로 한 모녀의 이야기인 ‘하스라’ 역시 두 이야기의 짜임새가 부족했다. ‘분통점 울림점 케일’은 순박한 인물들의 모습을 잔잔히 그려냈지만 이야기가 너무 단순했다. ‘검은등 배부기’는 안정감이 돋보인 수적으로, 노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사가 애뜻함을 안겨주었는데, 소재와 문체 면에서 참신성이 다소 부족했다. 텔레마케터인 주인공을 통해, 진부한 일상 속에서의 삶의 의미 혹은 존재의 진실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나는, 도르’는

의욕은 돋보였으나, 주제를 설득력있게 형성화해지지 못한 게 약점이였다. 결국 우리 두 사람은 별 어려움없이 ‘사작점.’을 당선작으로 결정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미덕은 무엇보다 소재를 잘 형성화해했다는 점이다. 물론 아동성폭력이라는 소재가 특별히 새로운



<한승원>



<임철우>

▲장흥고 졸업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 졸업 ▲1966년 대한일보 소설 ‘목신’ 당선 수상 ▲김동리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불교 문학상, 한국해양문학상, 한국소설문학상 등 수상 ▲동신중교사 역임 ▲대표작 ‘아재아재바라야 제’ ‘다산’ ‘초의’ ‘원효’ 등 다수

▲전남대 영문과 졸업 ▲1981년 서울신문 신춘문에 단편 ‘개도독’ 당선 ▲1984년 ‘아버지의 땅’ 창작문학상 수상 ▲1988년 ‘봄은 방’ 제12회 이상문학상 수상 ▲현한신대 문예창작과 교수 ▲대표작 ‘봄날’ ‘그섬에 가고싶다’ ‘백년여관’ 등 다수

모습이 동생과 좀처럼 닮았다. 동생의 사타구니에서 무릎으로 재빠르게 미끄러지던 손의 환영이 여자를 힘들게 했다. 어느 날, 여자가 남편의 늦은 저녁밥상을 차리고 있을 때 아이가 울자 남편이 아이를 안고 주방으로 왔다.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안고 있는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거칠게 빼냈다. “아이는 왜 안고 그래?” “애가 울잖아.” “응응, 여기 사랑, 사랑 먹어” 허허거린 큰아버지의 말소리, 물 위에서 떠들다 갈 때 들려가던 분홍색 슬리퍼 한 짝이 여자를 평생 따라다녔다. 여자는 큰아버지를 향해 조용히 욕을 지껄었다.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보지 못한 욕을 중얼대면서 여자는 정신없이 길을 걸었다. 한참을 걸다가 여자는 문득 귀를 돌아보았다. 돌아가야 할 거리가 까마득했다. 여자는 그만 몸을 돌렸다. 여자가 사는 주공아파트 근처에 다다르자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소방차 몇 대가 줄지어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어디에선가 불이 난 모양이었다. 소방차는 여자가 사는 104동 쪽으로 물러갔다. 여자는 불현듯 우유병을 가스렌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끄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다. 여자가 정신없이 뛰어갔다. 여자의 집이 검은 연기를 뿜실뿜실 토해내고 있었다. 잠 못 이루는 남편이 아이를 안고 뛰어다니는 소방관의 뒤를 따라 나왔다. “불길의 안방에 닿지 않았는데 방문이 열려서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 같아요.” 구급대에 의해 아이를 넘기면서 소방관이 말했다. 아이는 회생하지 못했다. 산후 우울증과 더불어 아이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여자는 2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미안하다. 혼자만 살아 나와서.” 답한 방문 덕분에 유독가스에 살았던 남편은 가끔씩 발작하는 여자를 붙잡고 자책을 하다가 약품을 도피처로 삼아 미친 듯이 일에 몰두했다. “에 깨단 말야.” 여자는 다시 전원을 갔다. ‘아이씨’ 남편이 리모컨을 소파에 던지며 작은 방 문을 퐁당 열고 들어가 버렸다. 여자의 입에서 긴 한숨이 나왔다.

#### 아이는 끝내 회생하지 못했다

#### “미안하다. 나 혼자만 살아 나와서”

#### 희부영계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요** 즘 들어 아이를 바라보던 여자는 그저 암울하고 절망적인 심정이 되곤 했다. 여자의 목숨은 이제 아이의 것이었다. 아이가 있는 한 여자는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살아내야 했다. 밤갈이 미끄러지는 손으로부터, 달콤한 사랑의 유혹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야만 했다. 잘 해볼 수 있을까. 여자는 불안하고 자신이 없었다. 그 생각을 하면 숨이 여자의 목까지 차올랐다. 여자는 안방에서 의자를 들고 무작정 집을 나섰다. 여자는 큰 길을 따라 걸었다. 밤잠이라 아

이가 금방 깨지는 양을 것이었다. 길을 걸으며 여자는 길게 숨을 마셨다. 여자의 가슴에 바늘 구멍만한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다.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살해된 아이는 일곱 살 이라고 했다. 일곱 살, 되 놀이며 여자는 동생을 떠올렸다. 여자의 기억 속에서 큰아버지의 얼굴은 가물가물하다. 시간이 흐르기도 했지만 큰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대신, 뽀뽀처럼 미끄러지던 큰아버지의 손, “응 응, 여기 사랑, 사랑 먹어” 허허거린 큰아버지의 말소리, 물 위에서 떠들다 갈 때 들려가던 분홍색 슬리퍼 한 짝이 여자를 평생 따라다녔다. 여자는 큰아버지를 향해 조용히 욕을 지껄었다.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보지 못한 욕을 중얼대면서 여자는 정신없이 길을 걸었다. 한참을 걸다가 여자는 문득 귀를 돌아보았다. 돌아가야 할 거리가 까마득했다. 여자는 그만 몸을 돌렸다. 여자가 사는 주공아파트 근처에 다다르자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소방차 몇 대가 줄지어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어디에선가 불이 난 모양이었다. 소방차는 여자가 사는 104동 쪽으로 물러갔다. 여자는 불현듯 우유병을 가스렌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끄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다. 여자가 정신없이 뛰어갔다. 여자의 집이 검은 연기를 뿜실뿜실 토해내고 있었다. 잠 못 이루는 남편이 아이를 안고 뛰어다니는 소방관의 뒤를 따라 나왔다. “불길의 안방에 닿지 않았는데 방문이 열려서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 같아요.” 구급대에 의해 아이를 넘기면서 소방관이 말했다. 아이는 회생하지 못했다. 산후 우울증과 더불어 아이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여자는 2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미안하다. 혼자만 살아 나와서.” 답한 방문 덕분에 유독가스에 살았던 남편은 가끔씩 발작하는 여자를 붙잡고 자책을 하다가 약품을 도피처로 삼아 미친 듯이 일에 몰두했다. “에 깨단 말야.” 여자는 다시 전원을 갔다. ‘아이씨’ 남편이 리모컨을 소파에 던지며 작은 방 문을 퐁당 열고 들어가 버렸다. 여자의 입에서 긴 한숨이 나왔다.

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다르게 여자는 강둑과 먼한 길로 접어들었다. 강물은 온통 흙탕물이었다. 하천변의밭들이 침수되고 나무들은 허리까지 물에 잠겼다. 이 강물을 거슬러 가면 여자의 고향동네가 나왔다. 여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큰집으로부터 나왔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명절 차례를 지내기 위해 큰집에 몇 번 갔을 뿐, 대학 진학 이후에는 걸음을 끊었다. 여자가 대학을 마치자 현장 생활을 접은 아버지가 서당골로 내려갔지만 여자는 아버지조차 찾지 않았다. 여자가 정신과 치료를 마치고 2년이 지난 후 큰아버지의 부고를 받았다. 풍을 맞고 5년이 넘게 자리보전을 한 끝이었다. 여자는 아버지에게 조금의 봉투를 부탁했다. “사람이 그러면 못쓰다. 키워준 은공은 알아야제.” 송수화가 너머에서 아버지가 여자를 나무를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처음으로 여자는 고향에 갔다. 산일을 하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서둘렀는데도 땅이 얼어붙어서 일이 더디더디 한격 정을 했다. 초봄의 꽃샘추위 때문에 장지에 따라온 사람들이 몸을 잔뜩 움크렸다. 하늘에 구름까지 긴 날씨가서 더욱 추웠다. 여자는 갑자기 오줌이 마려왔다. 소변보가 좋은 곳을 눈으로 훑었지만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흠뻑 젖은 티라 여의치 않았다. 그러대로 참을 수는 있을 것 같았다. 점심을 먹고서야 하관식이 진행되었다. 식구라고는 큰어머니와 아버지, 여자와 여자의 남편뿐이었다. 흠을 한 삼십 퍼센트 큰아버지 관 위에 뿌릴 때였다. 추워서 욕게장 국물을 떠먹는 탓인지 여자는 오줌이 마려워서 아랫배가 터질 것 같았다. 불현듯 어두운 광 안의 기억이 떠올랐다. 여자의 귀에 동생이 공공대는 소리, 큰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여자는 그때처럼 오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누군가가 여자에게 삼자루를 건넸다. 여자가 삼자루를 팽개치고 별안간 상복 치마를 들춘 채 바지를 내렸다. 여자는 관을 향해 오줌을 썼다. 여자의 아랫배가 텅 비워지며 온 몸이 따뜻해졌다. 눈물이 나도록 시원했다. 남편과 큰어머니가 여자의 매무새를 급하게 수습한 뒤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산을 내려갔다. 여자는 고향집을 향해 차를 몰았다. 다리를 건너자 두 개의 갈림길이 나왔다. 신작로와 독길이었다. 여자는 독길로 향해 가다가 차를 멈췄다. 여전히 강물은 흙탕물이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거센 물결에 휩쓸려 갈 것이었다. 여자는 동생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지점을 더듬어 보았다. 여자의 마음에 고여서 떠나려가지 못하던 동생이 거기 있었다. 여자는 동생을 그만 놓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딸아는 산등성이 아래 걸쭉한 짐승처럼 얽드리고 있는 작은 마을에 풍이 트고 있었다. 한때 여자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던 곳이었다. 여자는 갑자기 오랜 시간 차를 타고 도느기 않았던 말미를 느꼈다. 그 여행이었다. 등반기를 찢고 여자는 길을 놓쳤다. 순간 여자의 아랫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여자는 두 손으로 배를 감았다. <끝>

#### 광주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부문 당선 소감

### 황황히 먼길 떠나신 어머니 그림고 고맙습니다

#### 당선작 정보고서

▲1962년 나주 출생 ▲대전대 문예창작과 4학년

#### 단편소설 부문 심사평

### 아동 성폭력 내면 속 상처, 짜임새 있게 풀어내

의욕은 돋보였으나, 주제를 설득력있게 형성화해지지 못한 게 약점이였다. 결국 우리 두 사람은 별 어려움없이 ‘사작점.’을 당선작으로 결정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미덕은 무엇보다 소재를 잘 형성화해했다는 점이다. 물론 아동성폭력이라는 소재가 특별히 새로운

<한승원>

▲장흥고 졸업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 졸업 ▲1966년 대한일보 소설 ‘목신’ 당선 수상 ▲김동리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불교 문학상, 한국해양문학상, 한국소설문학상 등 수상 ▲동신중교사 역임 ▲대표작 ‘아재아재바라야 제’ ‘다산’ ‘초의’ ‘원효’ 등 다수

<임철우>

▲전남대 영문과 졸업 ▲1981년 서울신문 신춘문에 단편 ‘개도독’ 당선 ▲1984년 ‘아버지의 땅’ 창작문학상 수상 ▲1988년 ‘봄은 방’ 제12회 이상문학상 수상 ▲현한신대 문예창작과 교수 ▲대표작 ‘봄날’ ‘그섬에 가고싶다’ ‘백년여관’ 등 다수